

# 옛전남도청 분수대 보수공사 꼭 5·18 행사기간에 해야하나

### 동구, 5월 추진 방침에 사전조율 필요 지적

광주시 옛 전남도청 분수대 전면 보수 공사가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이하 35주년 기념행사) 기간 중에 추진될 전망이다.

5·18 주요 행사는 다음달 16일~5월 27일 분수대 주변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마저 있어 보수공사를 담당할 동구와 5·18기념행사위원회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분수대 구조물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실상 위험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면 보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주변에선 “왜 하필 이때 공사를 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25일 “이달 말에 분수대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오는데, (특정대 상관리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인 A~E등급) D등급 판정이 예상된다”며 “5월 안에 전면 보수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달 초 옛 전남도청 별관 안전진단을 맡은 업체에 분수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구는 이달 말 업체로부터 등급 확정판정을 받은 뒤 설계 용역을 곧바로 의뢰해 구조물 보수 및 내외벽 방수, 조정수 심기, 분수 노즐 및 자동제어장치 교체 등 전면 보수·보강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구가 5·18 행사기간에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안전이 우선이나 35주년 기념행사가 먼저냐를 놓고 불필요한 논쟁이 예상돼 주체 측인 5·18 민중항쟁 35주년 행사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사위는 다음달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5·18 민주광장 등에서 ‘5월 장작가오제’를 포함한 ‘50주년 광주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 등을 치를 예정이다.

일각에선 분수대 구조물이 안전하고 붕괴위험이 없다면 35주년 기념행사가 끝나는 5월 말 이후로 공사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민주·인권·평화 노래하는 음악인 발굴 오월정신 빛낸다

### 전국오월창작가요제, 5월 16일 민주광장서 개최

제5회 전국오월창작가요제가 오는 5월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으로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는 오월창작가요제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노래하는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 5·18의 전국화와 창조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오월음악과 오월창작가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4월13일부터 16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아 20일부터 24일까지 1차 음원 및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을 선정하고, 5월 2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차 예선을 실시해 본선 진출 10개 팀을 최종 선정한다.

응모 자격은 국적, 나이 제한 없으며 CD나 온라인 음원으로 정식 발표한 적 없고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순수

창작곡이어야 한다.

응모주제는 시대와 호흡하는 젊은 정신, 편견을 거부하는 자유정신, 부조리에 맞서는 저항정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삶 이야기 등이 담긴 창작곡으로, 장르는 제한이 없다. 대상 100만원(1팀), 금상 500만원(1팀), 은상 300만원(1팀), 동상 200만원(1팀), 장려상 100만원(6팀)의 창작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음악회’도 개최한다. 2인 이상의 가족이나 이웃(마을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단체 가능)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4월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차 음원 및 서류심사를 거쳐 총 12개 팀을 선정한다.

본선 무대는 5월5일 어린이날 수완 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열린다. 문의는 오월창작가요제 사무국(062-682-0518),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9 해질 18:48 달뜨기 10:46 달지기 00:08

**일교차 주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18	보성	맑음	-4/17
목포	맑음	0/13	순천	맑음	2/19
여수	맑음	5/15	영광	맑음	-4/14
나주	맑음	-3/19	진도	맑음	-1/15
완도	맑음	1/16	전주	맑음	0/17
구례	맑음	-3/19	군산	맑음	0/13
강진	맑음	-3/17	남원	맑음	-3/16
해남	맑음	-4/16	홍산도	맑음	4/9
장성	맑음	-4/18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	0.5	북	0.5
남부	북	0.5~1.0	북	0.5~1.0
남해	북	0.5	북	0.5
서부	북	0.5~1.5	북	0.5~1.5
남부	북	1.0~1.5	북	0.5~1.5

**생활지수**

수면	80
운동	80
빨래	90

**출발**

목적	출발	도착
목포	06:31	11:31
	18:31	23:40
여수	01:00	06:56
	13:00	19:13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27(금)	☀	2/19
28(토)	☀	4/20
29(일)	☀	9/21
30(월)	☀	9/23
31(화)	☀	10/23
4/1(수)	☀	12/17
2(목)	☀	11/18



25일 광주YWCA가 강당에서 개최한 '봄 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옷과 생활용품 등을 고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풍암호수에 영산강물 끌어들이다

### 서구, 2017년 말까지 2~3급 수질 개선 목표

### 하루 3000t 운반 300mm 송수관 건설사업 추진

하루 평균 3000여명의 시민이 찾는 광주 서구 풍암호수에 영산강물을 끌어들이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 서구는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하루 평균 3000t의 영산강물을 끌어들이는 송수관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구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4급수 수준인 수질이 2~3급수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서창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구간(영산강~금호동)의 종점인 금호동부터 풍암호수까지 2.3~3km 구간에 300mm 짜리 송수관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을 통해 풍암호수로 들어온

영산강물은 제방에 설치된 수문을 통해 서창천으로 흘러보내는 등 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 수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구는 송수관 건설에 대한 기술 검토를 최근 마무리하고, 조만간 건설사업비와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정부와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1956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된 풍암호수는 빗물을 제외하고는 유입수가 없어 여름이면 녹조와 악취가 발생해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광주시와 정부의 지원 아래 영산강물이 풍암호수로 들어오게 되면 호수 수질 개선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울산지점 364-7557

